



이렇듯 제노바와 정부가 부채와 세금에 시달리고, 파산 위기에 처하자 제노바의 금융업자 프란체스코 비발디는 정부 재정을 회복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신의 자산을 국고에 기부했다. 비발디의 지원으로 제노바의 재정은 안정성을 되찾을 수 있었다. 제노바 정부는 항상 은행의 자유를 존중했고, 은행은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정부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국가와 외부의 압력이나 갈등에도 불구하고 성 조지 은행은 곳곳하게 중립을 유지하며 부와 신용을 쌓아갔다. 공화국 정부가 재정난에 빠지면 해외 소유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도 했다.

경제학자인 더글라스 C. 노스는 1991년 "자본시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산권 보장을 수반하며, 정치적 지배자들이 자의적으로 자산을 압류하거나 가치를 급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진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제노바 정치인들은 정부 권력을 제한했고, 이는 은행과 자본시장이 번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그 결과 제노바는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대출기관 중 하나로 성장했다. 유럽 정부들도 계좌를 개설하고 자금을 예치할 수 있는 신용 받는 대출 기관이 되었고, 콜럼버스와 같은 저명한 탐험가들도 제노바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했다. 스페인의 페르난도 국왕과 이사벨 여왕 부부 역시 제노바 은행의 고객이었다.

수세기 동안 작은 제노바 공화국의 엄청난 번영과 영향력은 정치 지도자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안정적으로 운영된 개인 은행이 번영할 수 있도록 정부의 권력을 제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번역: 이주원

출처: <https://fee.org/articles/why-the-separation-of-bank-and-state-is-so-important/>